

# 도내 다양한 복지혜택 '한눈에'

### 전북자치도, '복지자원 플랫폼' 시연회... 7월 본격 운영 앞두고 플랫폼 구축 시연·점검

도내 산재돼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의 내용부터 지원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도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와 IT 등 분야별 전문가,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초 타당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각각각종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부터 구축 공역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도움 요청·상담·돌봄 연계 등 도내 복지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지원,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전북자치도는 5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스템을 보완한 뒤 오는 7월 도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플랫폼을 통해 도내 산재돼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을 쉽게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산재돼 있는 복지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복지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여 도민을 위한, 도민의 복지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2024 전북자치도 창업스쿨' 6월 21일까지 교육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캡컷종합기술원(원장 노상훈)과 함께 '2024년 창창한 창업스쿨'에 참여할 교육생을 6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창창한 창업스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 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총 3단계 80시간의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상위 50% 교육생이 다음 단계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 시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1대 1 맞춤형 컨설팅 위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기본교육은 요건검토와 서류 평가를 통과한 총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 기초실무, 아이디어 고도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2단계 실습 및 심화 교육은 1단계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계획서와 인터뷰 평가를 통해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린 스타트업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제조창업 현장탐방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을 위한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단계 교육은 2단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된 10명을 대상으로 투자밸류 측정법, 투자 로드맵 수립, 데모데이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전문가 연계를 통해 IR피치덱 컨설팅 및 제작을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을 개방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있다.

## 전북자치도,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 운영

### 도청사 잔디광장·물놀이 실개천 등 어린이들에게 개방 소풍·미니운동회·산책·청사1층 119안전체험 등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을 개방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열린 청사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청사 개방으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지친 도민들에게 잔디광장·맨발 황톳길과 같은 산책 환경을 제공하는 등 청사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사 내 일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지난 2019년 처음 운영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잠시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재가동되고 있으며, 올해는 규모를 기존 1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늘렸다.

코스는 두가지 코스로, 1코스(봄·가을 중심)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 미니운동회 등 소규모 놀이활동과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코스(여름중심)는 길이 25cm, 길이 60m의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잔디마당 내 황톳길 조성, 청사 1층 안전체험장 내 체험을 확대했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용수교체(주3회 이상 주중1회, 주말2회), 소독(매일), 수질 검사(월2회)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한달 간 63개 어린이집, 1,586명의 어린이가 도청을 다녀갔으며, 6월은 30개 어린이집, 707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예정이고, 7월 참여는 6월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푸른 잔디광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산책로를 걷고 깨끗한 물놀이 실개천에서 물놀이하고, 119안전체험까지 도청에서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용담호 수질보전 민·관 공동 실천

### 장마전 야적폐비 수거, 하천 정화 등 녹조 사전예방 정책제안, 사업발굴, 홍보 등 지속적 활동 추진계획

용담호의 물을 더욱 맑게 하기 위한 정화활동이 펼쳐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와 전 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진안군 등 관련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용담호 수질보전 협의회 첫 번째 공동 실천사업으로 진안군 정천면 일원에서 야적폐비 수거 및 하천 정화활동 등을 펼쳤다.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는 지난 3월 진안군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진안, 무주, 장수,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로 확대·발족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에 첫 합동 활동을 펼친 것이다.

특히 용담호 상류 지역에는 진안군의 전체 인구 40% 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이날 진안천 약 1km 구간에 대해 쓰레기 수거 등 집중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 장마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낙동강 수계 야적폐비 수거 시범사업 결과 조류경보 발령일수 경계단계가 9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둬 따라 전북지방

환경청과 시·군은 그동안 합동으로 야적폐비 조사를 하고 야적폐비 처리 및 덮개 설치 등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정화활동 역시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적폐비 수거도 병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민·관·학 공동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이에 앞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체계 검토, △기후변화 대비 장기적·종합적 수질관리방안 등 '용담호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용담호 물 공급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제29회 바다의 날 맞아 해양폐기물 수거

### 12개 기관·단체 공동주관, 250여명 합동정화활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신시도항에서 아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수거·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인·민간단체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달인 5월을 기념해 매년 5월 31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에 도내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통합·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북특별

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Kick-off 회의 결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해양환경 정화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3시간 남짓 방조제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부표, 각종 플라스틱, 페이퍼,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했으며,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